

석탄 char에 대한 산소의 화학흡착 속도

송광섭, 류청걸, 강성규, 김상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연료연소부,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Kinetics of Oxygen Chemisorption on Coal Char

Kwang Sup Song, Chong Kul Ryu, Sung Kyu Kang and Sang Don Kim*

Fuel and Combustion Research Department, KIER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AIST

1. 서론

탄소와 산소의 반응에 대한 연구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연구되어 잘 이해되고 있지만, 실제 반응 mechanism이나 반응 중간생성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탄소와 산소의 반응은 먼저 산소가 dissociative adsorption 되어 surface complexes를 형성하고 이것이 CO 혹은 CO₂로 탈착되어 반응이 종결된다고 알려져 있다.¹⁾ 탄소-산소 반응에서 탄소의 특성에 따라 반응활성을 계산하고, 반응활성의 비교척도로서 carbon의 active site concentration 측정방법이 많이 이용되는데, 탄소의 active site는 O₂의 chemisorption 실험으로 측정된다.²⁾ 한편 탄소에 대한 산소의 chemisorption kinetics에 대한 보고가 조금씩 발표되고 있지만, 탄소의 기원에 따라 화학적 구조 및 기하학적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특히 석탄의 경우 더욱 심함)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Waters 등³⁾은 Saran char에 대한 O₂ chemisorption 실험 결과에서 ln t 와 ln θ 사이에 선형적 관계가 존재함을 보이고, O₂ chemisorption sites는 continuous heterogeneous distribution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Cheng and Harriott는⁴⁾ 여러 porous carbon에 대한 oxidation and chemisorption rate가 2차 Langmuir adsorption isotherm에 따른다고 하였으며, Floss 등은⁵⁾ microporous char에 대하여 O₂ chemisorption 속도를 측정하고, 낮은 온도(400-550K)에서 탄소-산소 반응의 융속단계가 high activation energy에서 O₂ adsorption이라고 가정하고, distributed activation energy site model로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탄소에 대하여 온도에 따른 O₂ chemisorption 현상을 설명하고, O₂ chemisorption에서 해리 흡착된 산소의 탈착을 고려하여 O₂ chemisorption kinetics를 설명할 수 있는 화학흡착 반응속도식을 제안하였다. 석탄을 열분해 하여 얻은 char에 대한 산소의 chemisorption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화학흡착 반응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흡착반응 속도식에서 속도상수와 활성화에너지를 계산하였다.

2. 이론

탄소표면에서 산소의 화학흡착이 dissociative하고, activated하다면 collision theory에 따라 화학흡착 속도식은 식(1)과 같다.

$$r_a = 2\sigma \frac{P}{\sqrt{2\pi mk_b T}} (1 - \theta)^2 \exp\left(-\frac{E}{RT}\right) \quad (1)$$

where r_a = rate of adsorption in units of molecules [m²/sec]

$P/\sqrt{2\pi mk_b T}$ = total particle flux based on kinetic theory

E = activation energy of adsorption

σ = probability factor

$\theta = n_a/n_s$

n_a = number of active sites covered by adsorbate at time t [sites/m²]

n_s = total number of active adsorption sites [sites/m²]

일반적인 화학흡착에서는 탈착반응속도는 무시된다. 그러나 탄소에 화학흡착된 산소의 일부가 탈착(해리 흡착된 산소가 탄소와 반응하여 CO로)된다고 가정하고 탈착반응속도를 나타내면 식(2)와 같이 된다.

$$r_d = \alpha \theta \quad (2)$$

where r_d = rate of desorption in units of molecules [m²/sec]

α = desorption rate constant [m²/sec]

시간에 따른 피복율을 계산하기 위해 미소 시간에는 흡착 및 탈착 반응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임의의 미소시간 t 에서 다공성 탄소가 나타내는 피복율은 식 (1)과 식(2)에서 식(3)이 얻어진다.

$$\frac{\theta}{(1-\theta)^2} = k_o \exp\left(-\frac{E}{RT}\right) \quad (3)$$

where $k_o = 2\sigma P/\alpha n_s \sqrt{2\pi mk_b T}$

임의의 시간 t 에서 나타내는 피복율을 구하기 위해 식(3)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아진다.

$$\frac{\theta}{(1-\theta)} + \ln(1-\theta) = k_o \exp\left(-\frac{E}{RT}\right) t \quad (4)$$

3. 실험

Chemisorption 실험에 사용한 carbon은 동진탄을 열분해 시켜 얻은 char이다. 동진탄의 화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실험에 사용한 석탄은 40mesh 이하로 분쇄하여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Char의 제조 및 chemisorption 실험은 TGA(model : TG121 system, Cahn Co.)에서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실험 방법은 먼저 약 10mg 정도의 석탄을 TGA 반응기내 매달려 있는 백금접시(직경 약 100mm)에 넣고 반응기내 존재하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약 30분 동안 질소(O₂-free, 99.999% 이상)를 50ml/min로 흘려보낸다. 시료의 안정화 및 분위기ガ스의 교체가 끝나면 30°C/min으로 800°C 까지 가열하고 800°C에서 15분 동안 일정히 유지한 후 반응온도까지 냉각시켜 char를 제조하고, 반응온도가 안정화되면(약 10 분) 분위기 가스를 공기로 교체하여 chemisorption 실험을 수행하였다. Chemisorption 실험이 종결되면 반응기의 온도를 800°C 까지 올려 ash 함량을 측정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다공성 탄소는 상온에서도 공기중의 산소와 수분을 흡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⁶⁾ TGA에서 char를 제조하고 chemisorption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에는 chemisorption 온도에 따른 흡착속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온도가 증가할 수록 흡착속도가 증가한다.

Table 1 Chemical property of DONG JIN coal.

Proximate analysis(wt%)	Moisture	Volatile Matter	Fixed Carbon	Ash
	2.50	28.04	54.72	14.74
Ultimate analysis(wt%)	Hydrogen	Carbon	Nitrogen	Sulfur
	4.01	71.23	0.94	0.78
				Oxygen 23.04
Heating value (kcal/kg)		6420		
Ash analysis(wt%)	Al ₂ O ₃	SiO ₂	CaO	Fe ₂ O ₃
	17.79	41.40	6.36	28.21
			K ₂ O	Na ₂ O
			0.67	0.24
			MgO	SO ₂
			2.90	1.62

또한 chemisorption 실험을 계속하면 온도가 423 K인 경우에서는 40 hr이 지난 후에도 계속 흡착이 진행되며, 반응온도가 증가하면 최고점을 보이고 흡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chemisorption 온도가 낮으면 반응시간이 증가하여도 탈착에 의한 무게감소가 미미하여 무게감소를 나타내지 않지만, 온도가 503 K 이상이 되면 화학흡착된 산소 일부가 탄소와 반응하여 CO로 탈착 되기 때문에 흡착 최고점을 나타낸다.

이 실험자료를 기초로 하여 본고에서는 다공성 탄소에 대한 O₂ chemisorption model에서 탈착속도를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ln(1 - \theta) + \theta / (1 - \theta)$ 와 t 로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피복율은 실험에서 구한 최대 흡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이 값은 실제 최대 흡착량보다 작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피복율이 0.8정도까지 직선을 나타낸다. 탈착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⁴⁾(2차 Langmuir adsorption isotherm)과 본 모델을 비교하기 위하여 423K, 463K에서 얻은 실험결과를 비교하면 본 고에서 제시한 모델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본 모델에서 [그림 3]과 같이 온도에 따른 기울기 변화로부터 활성화에너지를 구하면 56 kJ/mol정도 된다. 이것은 Bansal 등이⁷⁾ 195-433 K 온도범위에서 Graphon의 O₂ Chemisorption 실험결과를 변형된 Elovich equation에 대입하여 구한 활성화에너지(13-52 kJ/mol)와 비교 된다.

5. 결론

다공성 탄소의 O₂ chemisorption에서 해리 흡착된 산소의 일부가 탈착되는 것을 고려한 O₂ chemisorption model을 제안하고, 탈착을 고려하지 않은 다른 모델과 비교였다. 석탄을 열분해 하여 얻은 char에 대한 O₂의 chemisorption에서 제안된 모델의 속도상수(k_o)는 31500/min이고, 활성화에너지는 56 kJ/mol이다.

REFERECEES

1. Laine, N. R., Vastola, F. J. and Walker, P.L., Jr: J. Phys. Chem., 67, 2030(1963)
2. Walker, P. L., Jr, Taylor P. L. and Ranish, J. M.: Carbon, 29, 411(1991)
3. Waters, B. J., Squires, R. G. and Laurenedreau, N. M.: Carbon 24, 217(1986)
4. Cheng, A. and Harriott, P.: Carbon 24, 143(1986)
5. Floess, J. K., Lee, K. J. and Oleksy, S. A.: Energy & Fuels, 5, 133(1991)
6. Zhuang, Q. L. Kyotani, T. and Tomita, A: Carbon 32, 539(1994)
7. Bansal, R. C., Vastola, F. J. and Walker, P. L., Jr: J. Colloid Interface Sci., 32, 187(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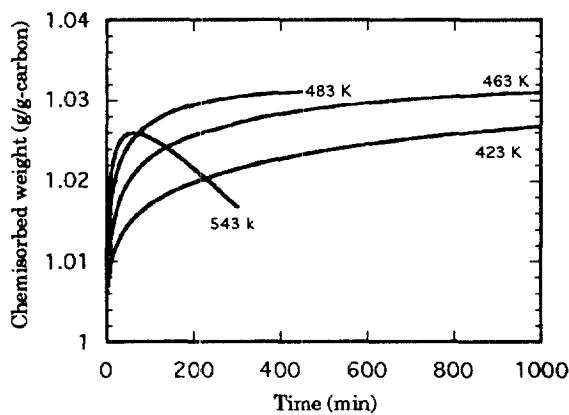


Fig. 1 Oxygen chemisorption on coal ch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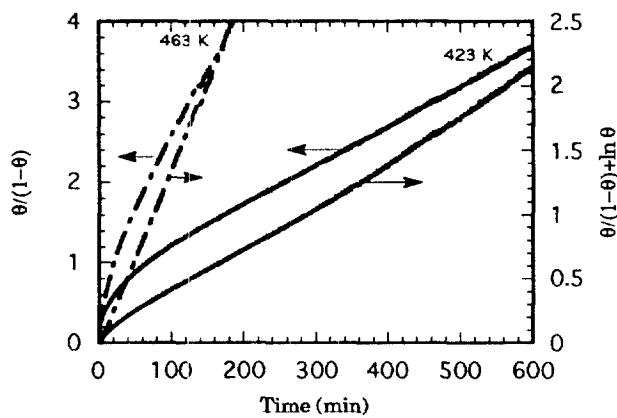


Fig. 2 Kinetic plots of oxygen chemisor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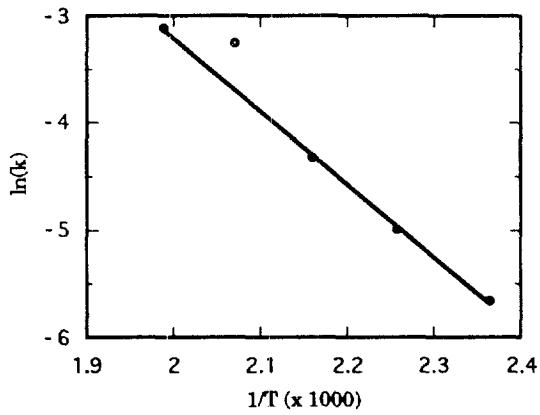


Fig. 3 Arrhenius plot of kinetic model.